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申舜植* 崔桓壽*

I. 머리말

옛 醫書의 版本에 대한 정확성 여부가 그 의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대의서중 하나인 『醫方類聚』(1443-1445)의 판본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두중(1896-1988)과 미키사카에(三木策, 1903-1992)가 주목할만하다. 그 뒤의 金信根과 眞柳誠의 연구는 앞의 두 분의 연구범위에 머물러 있다. 선행연구를 밑바탕으로 하여 『의방유취』의 판본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醫方類聚』가 朝鮮朝때 간행된 상황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과 중국의 간행상황 그리고 최근 한국(북한을 포함)의 간행상황을 통해서 이것의 정확한 판본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조선의 『醫方類聚』 간행

『의방유취』는 『朝鮮王朝實錄』에 모두 9회 나온다. 그중 『世宗實錄』에 1회(기록1), 『文宗實錄』에 1회(기록2), 『世祖實錄』에 6회(기록3-기록8), 『成宗實錄』에 1회(기록9)가 보인다. 기록중에 『醫方類抄』·『醫書類聚』라는 『醫方類聚』와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기록내용으로 보아 “抄”는 “聚”, “書”는 “方”의 誤記로 보여져 다 같은 『醫方類聚』이다.

기록1 : 세종27년(1445년) 10월 27일 : 集賢殿 副校理 金禮蒙, 著作郎 柳誠源, 司直 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方書를 수집해서 門을 나누고 각 門에 해당하는 類를 모아 合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直提學 金汶·辛碩祖, 副校理 李芮, 承文院 校理 金守溫에게 명하여 醫官 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安平大君 李瑒과 都承旨 李思哲, 右副承旨 李師純, 僉知中樞院事 盧仲禮로 하여금 監修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65권이였다. 이름을 『醫方類聚』라고 하사하였다.¹⁾

기록2 : 文宗1년 10월 9일 : 이계전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醫方類聚』와 『兵要』를 베껴

* 韓國韓醫學研究院 醫史文獻研究室

1) 『世宗實錄』 「第11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10. (“戊辰 ……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哀集諸方, 分門類聚, 合爲一書. 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 聚醫官全循義·崔閔·金有智等編集之. 令安平大君瑒·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 歷三歲而成, 凡三百六十五卷, 賜名曰『醫方類聚』.” :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10」, 77.)

쓴 사람에게 모두 特旨로 散官의 직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 들에게는 산관직을 제수하지 말라.” 하였다.²⁾

기록3 : 세조4년 4월 6일 : 예조에서 아뢰기를,

“世宗大王朝에 撰述한 『醫方類抄』는 여러 가지 처방이 갖추어 실려 있지만, 그러나 卷秩이 浩穰(多數의 뜻)하여 갑자기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簡要한 方書를 가지고 分門 講習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

기록4 : 세조5년 9월 1일 : 御書로 左承旨 李克權에게 유시하기를,

“『治平要覽』과 『醫方類聚』는 모두 世宗 때에 撰集한 책이므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람』은 다시 校閱해 보니 그릇된 곳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취』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곳이 많지 않고 또한 日用에 간절한 것이 『치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취』를 먼저 校正하여 印出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치평요람』의 흠은 房을 나누어 撰集했기 때문에 취사선택이 각기 달라서 상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아니다. 또 鄭麟趾가 한번 筆削하였지만 麤率하고 精密하지 못하다. 한 節 가운데 비록 매우 간절한 말이 있더라도 依例 이를 削除하고, 비록 그다지 쓰이지 않는 말이 있더라도 의례 이를 남겨두었으니, 어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여서 後人을 위해 훈계를 전하는 뜻이겠는가? 그 당시에 세종께서 나에게 명하여 다 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에 비로소 바로 보았다. 나와 더불어 다 본 사람은 金汝과 李季甸뿐인데, 두 사람은 늘 정인지가 疏略하고 빠르게 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말을 했다. 그러나 主管하는 사람들의 所爲가 감히 크게 更張(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릇되고 틀린 곳이 많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흠을 알았기 때문에 마침내 내버려 두고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니, 실상은 이를 인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근일에 卿이 인쇄하여 頒布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卿으로 하여금 그 그릇된 것이 많은 것을 알도록 하려고 다시 校正하게 하였다. 卿이 이미 흠이 많은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만약 先王(세종)의 일을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마땅히 크게 교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침내 인쇄하여 頒布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卿이 다시 상의하여 확정해서 아뢰어라.” 하였다.⁴⁾

2) 『文宗實錄』 「卷10」

3) 『世祖實錄』(3) 「第1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290.(“癸亥 …… 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醫方類抄』, 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 分門講習’, 從之.”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2」, 65.)

4)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46-347.(“九月庚辰 …… 御書示左承旨 李克權曰: ‘治平要覽』, 『醫方類聚』皆世宗時撰集之書, 不可不印. 然『治平』更校之, 則誤處多, 若『類聚』則不必如是之多誤矣. 且切用非『治平』之所及, 予欲先校『類聚』印出, 『治平』則徐徐更校如何? 『治平』之病, 分房撰集, 取舍各異, 詳略不同. 且鄭麟趾一筆存削, 麤率不精. 一節之中雖有甚切之, 語例以削之, 雖有甚不用之語例以存之, 豈留心繹思, 爲後人垂訓之意. 其時, 世宗命予盡覽, 予於是始覽定. 與予盡覽者 金汝·李季甸耳. 二人常以鄭麟趾麤略快率爲恨言之. 然摠主者之所爲, 不敢大有更張, 是故誤錯處多. 予知此病, 終置不舉實無印之心. 近日卿請印布, 予欲使卿知其多誤, 使之更校. 卿既知多病, 何以處之? 若

기록5 : 세조5년 11월 30일 : 行大護軍 梁誠之에게 명하여 『醫方類聚』를 校正하게 하였다.⁵⁾

기록6 : 세조5년 9월 4일 : 左承旨 李克堪이 上書하기를, “臣이 삼가 御書를 받들어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 『醫方類聚』도 또한 醫書의 大全이므로 日用에 緊切한 것은 진실로 『治平要覽』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斤兩의 多少와 藥性의 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校正하는 일은 마땅히 갑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校正을 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臣이 보건대, 醫書를 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文理를 通達하여 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校正하도록 하고, 원컨대 通儒로서 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兵要』를 교정하는 例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檢察하도록 해서 賞罰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廩祿을 주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 臣은 생각하건대, 두 가지 책은 모두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 삼가 성상의 裁可를 바랍니다.” 하니, 御書로 답하기를, “매우 마땅한 말이다. 卿이 아니면 능히 이같이 할 수가 없으니, 卿의 布置에 맡긴다.” 하였다.⁶⁾

기록7 : 세조10년 1월 11일 : 吏曹에 전지하여 孫昭 등 10인을 罷職시키고, 柳瑤 등 7인을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削除하고, 韓致良 등 46인의 進사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유취』를 校正함에 있어서 많은 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⁷⁾

기록8 : 세조10년 9월 8일 : 임금인 忠順堂에 나아가서 吏曹·兵曹를 불러서 注擬⁸⁾를 하도록 하여, 梁誠之를 吏曹判書로, 韓繼美를 西原君으로, 崔永濟를 行司憲 掌令으로 삼고, 『武經』을 註釋하고 『醫書類聚』를 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資級을 올렸는데, 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加資하였다.⁹⁾

欲不棄, 先王之事, 宜大學校正, 不然則終無印頒之理, 卿更商確以啓.’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 5) 『世祖實錄』(5) 「第18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8. (“戊申 …… 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醫方類聚』.”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8」, 8.)
- 6)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347-348. (“九月 …… 癸未 …… 左承旨李克堪上書曰: ‘臣伏承. 御書反覆尋思, …… 『醫方類聚』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 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不可容易, 然其校正不必儒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可令, 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 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別廩飲啖, 而功亦易就. 臣謂二書不可皆廢伏惟聖裁.’ 御書答之曰: “甚當非卿不能如是, 委卿布置.”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75.)
- 7) 『世祖實錄』(8) 「第3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98-99. (“甲子 …… 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瑤等七人罷職, 仍削前仕,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以校正『醫方類聚』多致錯誤故也.”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2」, 20-21.)
- 8) 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文官은 吏曹, 武官은 兵曹에서 후보자 3사람(三望)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 9) 『世祖實錄』(8) 「第34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334-335. (“戊午 …… 御忠順堂召吏·兵曹, 令注擬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西原君, 崔永濟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 並加一資

기록9 : 성종8년 5월 20일 : 西平君 韓繼禧, 좌참찬 任元濬, 행호군 權攢이 『醫書類聚』 30帙을 印行하여 올리고 아뢰기를,

“이 책을 찍어 내는 데 3년이 걸려서 공정이 끝났는데, 監印官 柳湑는 오래 醫官으로 滯留되었고, 白受禧는 典校署 別提로 이미 考滿이 되었으니, 청컨대, 유서는 좋은 벼슬을 제수하고, 백수희는 祿과 관직을 주소서.”

하니, 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인하여 한계희 등에게 虎皮 각각 한 장씩을 명하여 내려 주게 하였다.¹⁰⁾

기록1은 세종¹¹⁾의 命을 받아 金禮蒙·柳誠源·閔普和 등은 朝鮮내외의 모든 醫方書를 수집·정리하였고; 金汶·辛碩祖·李芮·金守濫·全循義·崔閔·金有智 등은 이를 編集하였으며; 李瑢·李思哲·李師純·盧仲禮는 이를 監修하여 『醫方類聚』 365卷의 草稿本이 世宗25년(1443)에서 世宗27년(1445) 10월 27일까지의 3년에 걸쳐 완성된 책임을 보여준다.

기록2는 세종27년에 『의방유취』를 완성한 뒤 문종1년까지 이를 베끼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또한 왕의 허락을 얻어내진 못했지만 이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의 승진을 啓請한 것으로 보아,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음을 보여준다.

기록3은 『의방유취』는 임상에 쓸 모든 처방을 갖추고 있어 교육용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卷帙이 너무나 방대하여 바로 간행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기록4는 『의방유취』는 일상생활의 쓰임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교정하고 간행해야하는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기록5는 2개월 뒤에 실제로 『의방유취』 교정을 梁誠之에게 명하는 내용이다.

기록6은 『의방유취』에 대한 교정의 잘못이 백성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儒醫의 감독하에 醫書習讀人들이 엄격하게 교정을 해야함을 알려준다.

기록7은 『의방유취』를 잘못 교정했을 경우, 孫昭·柳瑤등 17인은 파면되었고; 韓致良등 46인은 직위해제되었으며; 安克祥등 11인은 告身을 빼앗긴 것으로 보아 교정을 엄격하게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기록8은 『의방유취』의 교정작업이 힘든만큼 편찬을 완료한 자들에게는 1資級의 승진을 시켰음을 보여준다.

기록9는 柳湑·白受禧의 監印을 거쳐 韓繼禧·任元濬·權攢이 3년간에 걸쳐 『醫方類聚』 30帙을 印行하였음을 보여준다.

堂上官代加子·壻·弟·姪.” :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4」, 72.)

10) 『성종실록』(10) 「第8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273-274.(“丙戌 …… 西平君韓繼禧·左叅贊任元濬·行護軍權攢印進『醫書類聚』三十帙啓曰: ‘此書印出至三年功訖, 其監印官柳湑久滯醫官, 白受禧以典校署別提已考滿, 請授湑顯官, 受禧祿職.’ 傳曰: ‘可仍’. 命賜繼禧等虎皮各一張.” : 『成宗大王實錄』 「卷80」, 61.)

11) 세종의 재위년은 1418-1450이고 생몰년은 1397-1450이다.

따라서 세종의 명을 받아 1443년부터 1445년의 3년에 걸쳐 文官·醫官들이 365卷의 草稿本 『醫方類聚』(世宗本이라고도 함)를 완성하고, 문종¹²⁾1년(1451년)에서부터 세조¹³⁾10년(1464년)까지 梁誠之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여러차례의 刪削·校正과 離合整理를 거쳐 校正本 『醫方類聚』(世祖本이라고도 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3년의 板刻작업을 거쳐 『醫方類聚』(1445년 완성)가 편성된지 32년만인 성종¹⁴⁾8년(1477년)에 30帙의 初刊本 『醫方類聚』266卷 264冊(成宗本이라고도 함)이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이 인쇄된 뒤에 그 당시 內醫院·典醫監·惠民署·活人署등 관계官署에 分帙 배포되었을 것이고, 또 발행부수가 적고 그 뒤에 다시 간행되지도 않았으며 일반도서목록에는 비교적 적게 보이고 醫書인 까닭에 일반적으로 널리 실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 일본의 『醫方類聚』 간행

일본은 壬辰倭亂때에 조선에서 엄청난 책을 약탈하였다. 『醫方類聚』도 그중의 하나이다. 1477년에 30질의 初刊本 『醫方類聚』중 1질 250卷 252冊이 현재 宮內廳 書陵部 圖書寮에만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는 圖書寮本 『醫方類聚』로 乙亥活字 原刊本이다.

이것은 每冊의 머리 부분에, 「醫學圖書」·「躋壽殿書籍記」·「多紀氏藏書印」·「大學東校典籍局之印」·「帝國博物館圖書」·「宮內省圖書印」이 찍혀 있다. 즉, 원래 多紀氏 江戶의학의 장서로, 明治維新 후부터 大學東校 典籍局¹⁵⁾ → 官立의 아사쿠사문고(淺草文庫)¹⁶⁾ → 우에노(上野)의 帝室博物館 → 宮內省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多紀氏에게는 어떻게 전해졌을까? 多紀元堅의 『時還讀我書』(하권)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醫方類聚』는 조선의 의서이다. 먼저 仙臺의 의사인 工藤平助의 집에 보관하여 전해온 것인데, 이는 加藤清正이 조선에서 빼앗아 가져온 것이다. 先教論(元簡)이 많은 돈을 내고 구입하여 대단히 보물처럼 중시하였다. 云云

한편, 江戶 校勘學의 鼻祖인 吉田篁燾의 『書簡集』에는 工藤平助(伊達藩 江戶表의 儒醫)로부터 본서의 소장자를 듣고 奈須玄眞(恒德의 養父)집에서 多紀元簡으로의 양도를 증개했다고 적고 있다. 즉, 文祿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1592-1596) 加藤清正軍이 약탈한 본서가 工藤家の 소장자를 매개로 해서 多紀家에 전해진 것이다. 실록 활자로 겨우 30부가 印行되었던 본서는 이렇게 해서 일부만 일본에 전승되었다.¹⁷⁾

12) 文宗의 재위년은 1450-1452이고 생몰년은 1414-1452이다.

13) 세조의 재위년은 1455-1468이고 생몰년은 1417-1468이다.

14) 成宗의 재위년은 1469-1494이고 생몰년은 1457-1494이다.

15) 明治2年 5月 昌平坂에 있는 開成所(蕃書調査所의 別名)를 大學校로 명명해서 醫學敎를 그 附屬으로, 12月 大學校를 大學으로 改稱, 開成所를 大學南校로, 醫學敎를 大學東校라 稱했다.

16) 淺草御倉屋敷跡에 있었다. 明治7年 7月 設立, 14年 5月 廢止.

工藤平助로부터 多紀元簡(1755-1810)이 주재하던 江戸의 躋壽館에 옮겨진 다음 元簡의 아들 元堅(1795-1857)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고 당시 일본의 고증학자들에 의해 重寶의 珍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江戸末頃に 多紀元堅은 이미 중국에서도 없어진 중국 의서를 『의방유취』로부터 베껴서 30여부를 『醫方類聚採輯本』이라는 이름으로 復原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 『耆婆五藏論』 1卷1冊

『躋壽館醫籍備考』에 “『耆婆五藏論』1권1책·『醫方類聚』採輯本, 不著撰人名氏, 攷『舊唐書』, 『經籍志』, 『五藏論』1卷, 『新唐書』亦同, 則其書係於唐代編輯不知矣. 嘉永辛亥, 喜多村直寬活字印刷, 傳于世.”라고 하였다. 『五藏論』은 실은 잃어버린 책이나 文政3년(1820)에 多紀元胤이 『醫方類聚』에서 베껴서서 復原하여 嘉永4년(1851)에 『의방유취』木活字版에 맞추어 喜多村直寬에 의해 간행한 것이다.

(2) 『傷寒括要詩』 3卷1冊

『躋壽館醫籍備考』에 “宋劉元賓撰, 錄出于朝鮮國所輯『醫方類聚』中, 丹波元胤曰: 按劉元賓自號通眞子, 是書以仲景舊論, 裁爲詩括, 又以剩義爲註, 註中有所發明, 『朱氏活人書』多襲其語, 詩凡一百一十二篇, 每篇七言四句, 末附醫方三十九道, 收在朝鮮國人手編『醫方類聚』中, 較其所自言數實倍之, 先子曰: 意子儀始作六十篇, 後人補之者, 鄭漁仲唯見其初集, 故稱一卷, 弟堅從『類聚』中, 錄出釐爲二卷, 今仍著錄於此, 『讀書後志』所著, 似此一書.”가 있다.

(3) 『川玉集』 1卷4冊

『躋壽館醫籍備考』에 “宋亡名氏, 係『醫方類聚』採輯本.”이 있다.

(4) 『千金月令』 2卷1冊 『醫方類聚』採輯本. 唐의 孫思邈이 지은 것이다.

(5) 『簡要濟衆方』 1卷1冊 宋 周應等撰

『躋壽館醫籍備考』에 “按『宋史』仁宗紀云: 皇祐三年五月乙亥, 頒『簡要濟衆方』, 按方劑, 救民疾是也. 丹波元堅曰: 是書陳·晁二氏並不著錄, 惟唐慎微·劉完索引之, 而朝鮮國『醫方類聚』載藏府一類, 其方出『聖惠』者, 僅薏仁散·酸棗仁丸·香砂丸三方, 餘皆彼書所無, 不知何故也. 平胃散一方世爲出『局方』, 不知其本於是書, 自餘諸方亦多可資用者矣.”가 있다.

(6) 『神功萬全方』 12卷6冊 宋 劉元賓撰

『躋壽館醫籍備考』에 “丹波元胤曰: 是書輯在于『醫方類聚』中, 弟堅嘗爲錄出. 跋曰: 右宋劉元賓子儀撰, 其方藥採之於『聖惠』者, 十居七八, 多可施用, 其論說亦原本古人, 間加己見, 至如其舉傷寒各治辨中風諸症, 最爲賅備, 頗有發明, 奈何世久失傳, 元明諸家罕徵引者, 今覽『醫方類聚』中所載, 按條掇拾, 雖未復舊觀, 然大要略具矣. 仍謹依類排纂, 詳加訂正, 從『宋史』原目, 釐爲十二卷云”라고 기록했다. 北宋 熙寧間의 저술이다.

(7) 『易簡歸一』 1卷1冊 元 徐若虛撰

17) 眞柳 誠 解説. 『目でみ漢方史料館』(56) 『現存唯一無二の『醫方類聚』初版』-宮内廳書陵部に藏せられる朝鮮古活字本-. 『漢方の臨床』1992: 39卷 10號: 1248.

18) 三木榮 著. 『朝鮮醫書誌』. 増修版發行. 大阪: 昭和48年(1973): 348-352.

『躋壽館醫籍備考』에 “丹波元胤曰：『醫方類聚』中所載『王氏易簡方』，與德膚書不同，不知出于何人，其體例亦類錄四家，而成編，豈徐若虛所著歟。山本萊園允嘗輯爲一卷，雖非完璧，使覽者易於運用也。”가 있다.

(8) 『衛生十全方』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宋 夏德懋撰

(9) 『吳氏集驗方』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宋 吳得夫撰

(10) 『管見大全良方』 5卷3冊 宋 陳自明撰

『躋壽館醫籍備考』에 “此書世無刊本，散見于『醫方類聚』各證門，乃丹波元堅採輯本也.”가 있다.

(11) 『朱氏集驗方』 10卷10冊 宋 朱佐撰

『躋壽館醫籍備考』에 “是編分風寒諸門，采掇議論詳盡曲當，凡所載宋氏醫書，多不傳之秘笈，又從當時善本錄出，如小兒病源方論長生丸塌氣丸，較影抄本爲詳，是書『醫方類聚』各證門亦引之，醫官船橋經中恒採錄，得十卷.”라고 서술했다. 宋末의 저술이다.

(12) 『經驗秘方』 8卷8冊 元 亡名氏撰，元初의 책이다.

(13) 『經驗良方』 15卷8冊 元 亡名氏撰

『多紀氏醫籍考』에 “按右二書，元人所著，輯在于『醫方類聚』中，弟堅錄出之.”라고 하였다.

(14) 『施門端效方』 3卷2冊

『多紀氏醫籍考』에 “按是書，亦是『醫方類聚』採輯本』，弟堅繕錄成編.”라고 하였다.

(15) 『烟霞聖效方』 2卷2冊 『『醫方類聚』採輯本』

(16) 『澹軒方』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

(17) 『醫林方』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

“以上三書，未詳撰者，然各證門所援，味其方論，似成于元人”과 『躋壽館醫籍備考』에 서술했다.

(18) 『脩月魯般經』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元 亡名氏撰

(19) 『脩月魯般經後錄』 2卷1冊

『『醫方類聚』採輯本』，元 亡名氏撰

(20) 『龍樹菩薩眼論』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

『躋壽館醫籍備考』에 “丹波元堅錄出，以爲一卷，趙希辨曰：右佛經龍樹大士者，能治眼疾，或假其說，集治七十二種目病之方”라고 서술했고 隋唐間에 저술되었다.

(21) 『瘡科通玄論』 1卷1冊

『『醫方類聚』採輯本』，明 楊得春撰

(22) 『小兒藥證』 1卷1冊 宋 劉景裕撰

『躋壽館醫籍備考』에 “劉元胤曰：是書久佚，弟堅從『醫方類聚』各門所輯錄，出哀爲一編.”가 있다.

(23) 『保童秘要』 2卷2冊 金 劉完素撰

『醫方類聚』採輯本, 多紀氏가 이것을 採輯했다.

(24) 『濟生續方』 8卷 宋 嚴用和撰

多紀氏 『醫籍考』에 “按是書, 世不見其傳, 叔父筠菴君得之一門人, (中略), 然其本爛鈔多訛, 方評不與序中所言符, 元胤從『醫方類聚』各證門所輯, 疇勘釐正, 併補二評十二方, 始爲完全焉.”라고 서술했다.

(25) 『王氏集驗方』 5卷5冊 元 王東野撰

『多紀氏醫籍考』에 “按是書收在于朝鮮國『醫方類聚』中, 弟堅錄出, 以還原目.”라고 하였다. 元 大德間의 저술이다.

(26) 『活幼口議』 20卷 元 曾世榮撰

“多紀柳泐跋에 弟茵庭嘗從朝鮮國『醫方類聚』中, 錄出成編”라고 河內全節이 펴낸 『漢土小兒科史料』(『醫談』 제52호)에 기재되어 있다.

(27) 『嬰孩妙訣』 2卷 宋 湯民望撰

『醫方類聚』採輯本 있음(『漢土小兒科史料』, 『醫談』 제52호).

(28) 『食醫心鑑』 1卷 唐末 唐 昝殷撰

多紀元堅이 採輯하고 森約之가 校正한 책을 羅振玉이 입수하여 民國13년에 活字化 하였다.

(29) 『產寶』 3卷 前人

多紀氏 『醫籍考』에 “友人船橋經中恒, 從『類聚』錄出, 以經閉帶下並妊娠爲上卷, 以坐月產難爲中卷, 以產後諸證爲下卷.”라고 기술했다.

(30) 『產書』 1卷 宋 王嶽撰

多紀氏 『醫籍考』에 “按, 是書久佚, 特朝鮮國『醫方類聚』中所收, 殆爲完璧, 弟堅錄出, 以爲一卷. 可謂發幽光於數百年湮晦之餘”라고 기술했다.

(31) 『瑣碎錄』 3卷 恐南宋初世 宋 陳擘撰

(32) 『簡奇方』

(33) 『新效方』

(34) 『備預百要方』

(35) 『肘後方』

그뒤에 거의 400여년이 지난 일본 嘉永5년(哲宗3년, 1852)에 일본의관 喜多村直寬이 10년에 걸쳐 木活字로 縮板重刊하였다. 원래의 總卷數가 266卷 264冊인데 약탈할 때 12冊이 없었던 것을 重刊할 때 原本의 편집형식을 모방하여 12冊을 다시 보충하여 原刊本의 卷數와 일치되는 266권의 完本을 인쇄하였다. 이것이 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이며 直寬版 『醫方類聚』라고도 한다.

喜多村直寬(1804-1876)에 의한 본서의 復刊과 그 후일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喜多村直寬은 多紀氏 江戶 의학관에 奉職한 의관으로, 그의 의학 업적은 잘 알려져 있다. 그 하나로, 直寬은 실로 17종이나 되는 私家 版木活字本을 출판하고, 이 분야에서 江戶후기 최

다 출판자였다. 그리고 권수로도 江戸후기의 3大목활자본 중, 2책은 直寬版보다 그 수가 적다. 그 하나가 多紀氏가 所藏한 朝鮮版 『醫方類聚』 266권의 復刊이다.

대부분의 책을 출판하는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 直寬의 復刊결심을 알았던 동지가 모두 돈을 건넨 사실은 多紀元堅의 『醫方類聚』 「序」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森潤三郎(鷗外(오오가이)의 동생)의 보고에 의하면, 直寬은 嘉永5년(1852) 3월의 將軍 御手元金으로부터 百兩의 돈을 빌리고 이듬해부터 매년 10량씩 갚아나갔다. 1852년 4월에 비로서 본서의 출판이 시작되었다. 사진 1은 그 표지로 直寬의 書室인 “學訓堂”과 활자판의 중국식 雅稱인 “聚珍版”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多紀氏가 소장한 조선판은 전체적으로 12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直寬은 澁江抽齋에게 청하여 모든 책을 참고로 缺落을 어느 정도 보충해 받은 일이 元堅의 「序」에 기록되어 있다. 이리하여 10년 후 文久원년(1861) 2월에 본서의 復刊이 드디어 완결되었다. 조선의 초판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다만 이것도 일본·중국·한국·대만에 모두 합쳐 10질정도 밖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인쇄되지 않았던 것 같다. 直寬은 2종류의 종지로 인쇄하고 淺田宗伯 舊藏本은 얇은 雁皮紙, 山田業廣 舊藏本은 보통의 두꺼운 日本紙이다.

그리고, 明治9년(1876) 2월에 일본은 조선정부와 병자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直寬은 조선으로 가는 外務理事官인 宮本小一에 부탁하여 禮品으로서 이 『의방유취』와 자신의 저서 몇부를 조선정부에 증정하였다. 宮本小一은 淺田宗伯의 환자명단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宗伯을 매개로 直寬과 안면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의방유취』와 재회한 조선의관들은 直寬의 義學를 격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贈呈 手續書와 조선정부의 謝辭는 直寬이 같은 해 12월 9일에 죽은 뒤에 전해졌다.¹⁹⁾

그밖에 佐伯文庫의 『醫方類聚』 寫本과 日本文久木活字版에 依據한 筆寫石版이 있다.

佐伯文庫의 『醫方類聚』 寫本 : 『醫方類聚』 44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圖書寮本 『醫方類聚』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다. 豊後佐伯藩主毛利出雲守高標의 所藏으로 계승되다가 손자인 伊勢守高翰이 文政10년에 幕府에 進獻한 數萬卷의 서적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日本文久木活字版에 依據한 筆寫石版 : 10冊의 木本으로, 특히 一冊의 「總目索引」과 「引用文獻索引」이 새롭게 編輯되어 附刊되었다.

2-3. 한국의 『醫方類聚』 간행

『醫方類聚』의 「跋文」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高宗十三年(西紀一八七六年) 二月에 韓日修好條約이 韓日間에 締結될 때 黑田清隆이 日側の 全權大使로 來韓時 韓國政府에 주는 膳物로 覆刊本 『醫方類聚』를 가져오게 되었다. 喜多村 直寬이 宮本一行이 韓國에 간다는 消息을 듣자 그가 江戸幕府 醫官으로 있을 때 覆刊한 『醫方

19) 眞柳 誠 解説. 「目でみ漢方史料館」(58) 「喜多村直寬による『醫方類聚』の復刊」. 『漢方の臨床』 1992 39卷 12號: 1488.

類聚』二百六十六卷을 自己著書 數十種과 함께 獻上하였던 것이다. 이때 우리 政府에서는 禮曹判書 金尙鉉을 통해 『醫方類聚』를 받아 이를 舊王室典醫局에 秘藏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最近까지 내려오다가 六·二五動亂때 散佚되었다고 傳聞된다. 다른 한帙은 洪宅柱氏의 所論을 보면 日本人 黒田清隆 등이 禮曹判書 沈舜澤을 졸라서 通商協定을 맺은 뒤 洪公이 典醫局을 訪問했을 때 『醫方類聚』가 있어 그 經由와 來歷을 물어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單只 當時 日人과 親交가 있던 金士良이란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洪公은 英親王이 日本에 人質로 건너갈때 大關을 나왔다. 이때 太上皇께서는 이 『醫方類聚』를 洪公에게 下賜하시며 “卿은 이 冊을 幼王보듯이 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여 이 一帙의 『醫方類聚』는 洪宅柱氏의 所藏으로 傳하게 되었다.

이처럼 波瀾曲折을 겪은 『醫方類聚』는 日帝時부터 여러번 그 重刊이 試圖되었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失敗했으나 그中 大同出版社 社長 李種萬氏는 期於히 重刊하고자 말겠다는 信念으로 數十名의 寫字生을 動員하여 數個月에 걸쳐 完全히 脫稿했으나 때마침 中日戰爭이 勃發하여 모든 印刷材料價格이 騰貴하였을 뿐만 아니라 紙物이 窮乏해져서 到底히 印刷가 不可能하여 拋棄하고 말았으나 그외에도 西紀 一九四三年頃에는 鄭某라는 사람이 國內에선 不可能하니 中國에 가져가서 出版해야겠다고 洪宅柱氏에게 累次 懇請하여 航空便으로 上海까지 실어갔다가 如意치 못하여 斷念하고 말았으나 그후 西紀 一九四五年 五月頃에는 冊所有者인 前記 洪宅柱氏가 死亡하자 書籍仲介人인 洪翼杓氏의 紹介로 延世大學校 圖書館으로 팔려갔고 結局 이것이 오늘에 現存하는 『醫方類聚』의 唯一本이 된 것이다.²⁰⁾

高宗13년(1876) 丙子朝日修好條規가 強行될 때 일본에서는 이 책의 原刊行本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없어진 것을 재삼 확인한 뒤에, 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266卷²¹⁾(喜多村直寬本) 2부를 우리 정부에 修好禮物중에 넣어 獻納하였다.

위의 「跋文」의 기록으로 보면 2부중의 하나는 병자조일수호조규 때 金尙鉉이 『의방유취』를 일본정부로부터 받아 舊王室 典醫局에 秘藏하여 전해 내려오다가 1950년 6·25動亂때 없어졌다. 다른 하나는 金士良이 일본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의방유취』를 받아²²⁾ 舊王室 典醫局에 보관한 것을 高宗이 당시 典醫였던 洪哲普에게 하사하면서 “卿은 이 冊을 幼王보듯이 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귀중히 하였고, 이것은 洪宅柱氏에게 전해져 所藏하게 되었다.

日帝때부터 여러번 그 重刊이 시도되었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失敗하였다. 그중 大同出版社 社長 李種萬은 수십명의 寫字生을 동원하여 수개월에 걸쳐 完全히 脫稿했으나 中日戰爭²³⁾으로

20) 李鍾奎 發行. 『醫方類聚』(索引) 「跋文」. 서울: 東洋醫科大學, 1965.

21) 1852-1861년 2월의 약10년에 걸쳐 喜多村直寬이 간행한 것이다.

22) 丙子朝日修好條規때 『의방유취』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跋文」의 “日本人 黒田清隆 등이 禮曹判書 沈舜澤을 졸라서 通商協定을 맺은 뒤 洪公이 典醫局을 訪問했을 때 『醫方類聚』가 있어 그 經由와 來歷을 물어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單只 當時 日人과 親交가 있던 金士良이란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중단되었다.

또한, 세계제2차대전이 치열하던 1942년에 중국 上海 中華醫學會 范行準이 本書를 影印하기 위하여 한 때 홍택주에게 빌려 갔으나 戰禍로 말미암아 실현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초에 다시 본인에게로 무사히 반환되었다.²⁴⁾

그뒤 1945년 5월경에 책소유자인 洪宅柱씨가 사망하자 서적중개인인 洪翼杓씨의 소개로 延世大學校 圖書館으로 팔려갔고, 이것이 오늘날 現存하는 『醫方類聚』의 唯一本이 된 것이다.(延世大本 『醫方類聚』)

“우리나라 國民醫療保健에 그 比重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漢醫學研究에 없어서는 안될 이 珍貴한 文獻을 死藏함이 漢醫學界를 爲하여 哀惜한 일이며 또한 本書를 創刊하신 世宗大王 聖志를 받드는 意味에서”²⁵⁾ 1965년 1월-7월의 7개월에 걸쳐 東洋醫科大學에서는 『醫方類聚』重刊委員會를 설립하고 총4893명을 동원하여 延世大本 『醫方類聚』를 베껴쓴 “筆寫本 『醫方類聚』”11冊을 완성하였다. 발행자는 李鍾奎이고 발행처는 東洋醫科大學이며 인쇄자는 崔衡泰였다.

『醫方類聚』重刊委員會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 學長 李鍾奎

副委員長 : 教授 權寧俊

委員 : 副教授 尹吉榮·副教授 蔡仁植·副教授 安秉國·助教授 姜孝信·專任講師 崔容泰

編輯 및 總務 : 姜弘範

財政幹事 : 姜孝信

筆耕 및 印刷專擔 : 崔衡泰 外20餘名

校正 : 李在瑛等²⁶⁾

그뒤에 “筆寫本 『醫方類聚』”11冊을 다시 1981년 1월에 다시 臺灣의 中華世界資料供應出版社有限公司에서 編整한 것을 한국의 金剛出版社에서 影印을 하였다.

또한, 북한의 東醫科學院에서 校閱과 監修를 하고, 1994년 9월에 驪江出版社에서 발행한 『原文 醫方類聚』(全20冊)가 있다.

국역본으로 북한의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에서 번역하고 북한의 의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의방유취』(전20권)를 1991년 10월에 여강출판사에서 영인하였다.

23) 中日戰爭: 일본의 침략행위로 인하여, 1937년 7월부터 중국의 전국토에 전개되었던 전쟁이다.

24) 金斗鍾. 『醫方類聚』解題. 『黃帝醫學』1977: 제2권 제2호 : 64.

「跋文」에는 “西紀 一九四三年頃에는 鄭某라는 사람이 國內에선 不可能하니 中國에 가져가서 出版해야겠다고 洪宅柱氏에게 累次 懇請하여 航空便으로 上海까지 실어갔다가 如意치 못하여 斷念하고 말았으나”라는 것으로 보아 鄭某라는 사람의 소개로 上海의 范行準씨에게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25) 李鍾奎 發行. 『醫方類聚』(索引) 「跋文」. 위의 책, 4.

26) 李鍾奎 發行. 『醫方類聚』(11冊) 「跋文」. 앞의 책, 4.

2-4. 중국의 『醫方類聚』 간행

1979년에 浙江省中醫研究所와 湖州中醫院의 두 기관은 같이 『醫方類聚』校點小組를 설치하여, 일본 江戸學訓堂本(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을 底本으로하고 교열과 標點을 달아 校點本 총11책을 人民衛生出版社에서 간행하였다.

Ⅲ. 맺음말

『醫方類聚』는 당시까지의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한 의서로 일본과 중국에는 이에 필적하는 의서가 없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다. 이미 없어진 중국과 한국의 의서를 고증하고 복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는 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의서이다.

옛 醫書의 版本에 대한 정확성 여부가 그 의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대의서중 하나인 『醫方類聚』(1443-1445)에 대한 판본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선행 작업으로 三木榮이나 金斗鍾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朝鮮王朝實錄』의 『의방유취』 관련 기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의방유취』의 朝鮮朝때 간행된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일본과 중국의 간행상황 그리고 한국(북한 포함)의 간행상황을 통해서 이것의 정확한 판본을 알아보고자 한다.

世宗의 명을 받아 1443년부터 1445년의 3년에 걸쳐 文官·醫官들이 365卷의 草稿本 『醫方類聚』(世宗本이라고도 함)를 완성하고, 文宗1년(1451년)에서부터 世祖10년(1464년)까지 梁誠之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여러차례의 刪削·校正과 離合整理를 거쳐 校正本 『醫方類聚』(世祖本이라고도 함)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3년의 板刻작업을 거쳐 『醫方類聚』(1445년 완성)가 편성된지 32년만인 成宗8년(1477년)에 30帙의 初刊本 『醫方類聚』266卷 264冊(成宗本이라고도 함)이 나오게 되었다.

『의방유취』는 世宗本(1443-1445), 世祖本(1464), 成宗本(1477)이 나왔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약탈해가 그 원본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醫方類聚』는 加藤清正 → 工藤平助 → 江戸의 躋壽館 → 大學東校 典籍局 → 淺草文庫 → 帝室博物館을 거쳐 최종적으로 宮內省 圖書寮(圖書寮本 『醫方類聚』: 乙亥活字 原刊本)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丙子朝日修好條規(1876) 때 들어온 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1852-1861년 2월의 약10년에 걸쳐 喜多村直寬이 간행) 2부중 하나는 舊王室 典醫局에 秘藏하여 오다가 6·25動亂때 없어졌고, 다른 하나는 高宗下賜 → 典醫 洪哲普 → 洪宅柱 → 書籍仲介人인 洪翼杓 → 延世大學校 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存하는 『醫方類聚』의 唯一本이다.(延世大本 『醫方類聚』)

그 뒤에 1965년 東洋醫科大學은 延世大本 『醫方類聚』를 베껴쓴 “筆寫本 『醫方類聚』”11冊을 간행하였고, 이를 다시 1981년에 대만의 中華世界資料供應出版社有限公司에서 編整하여 金剛出版社에서 影印하였다.

또한, 북한의 東醫科學院에서 校閱과 監修를 하고 1994년 9월에 驪江出版社에서 『原文 醫方

類聚』(全20冊)를 발행하였다.

북한의 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에서 번역하고 북한의 의학출판사에서 발행한 국역본인 『의방유취』(전20권)를 1991년 10월에 여강출판사에서 영인하였다.

중국에서는 1979년에 浙江省中醫研究所와 湖州中醫院의 두 기관이 일본 江戸學訓堂本(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을 底本으로하여 標點을 달아 총11책을 간행하였다.

韓國本(北韓本포함)이나 中國本이나를 막론하고 일본의 宮內省 圖書寮에 보존되어 있는 圖書寮本 『醫方類聚』(乙亥活字 原刊本)를 底本으로 삼아 간행한 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를 原本으로 하여 출판하였다.

『의방유취』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이 圖書寮本 『醫方類聚』를 正本으로 삼고, 명확하게 검토될 때 비로소 『의방유취』연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색인어】 『醫方類聚』, 世宗本, 世祖本, 成宗本, 圖書寮本『醫方類聚』, 木活字 縮板重刊本 『醫方類聚』

참고문헌

1. 『世宗實錄』. 第11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 『世宗莊憲大王實錄』. 卷110.
3. 『文宗實錄』. 卷10.
4. 『世祖實錄』(3). 第1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5.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2.
6. 『世祖實錄』(4). 第17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7.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7.
8. 『世祖實錄』(5). 第18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9. 『世祖惠莊大王實錄』. 卷18.
10. 『世祖實錄』(8). 第32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11.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2.
12. 『世祖實錄』(8). 第34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13. 『世祖惠莊大王實錄』. 卷34.
14. 『성종실록』(10). 第80卷.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15. 『成宗大王實錄』. 卷80.
16. 眞柳 誠 解説. 「目でみ漢方史料館」(56) 「現存唯一無二の『醫方類聚』初版」-宮内廳書陵部に藏せられる朝鮮古活字本-. 『漢方の臨床』1992: 39卷 10號.
17. 三木榮 著. 『朝鮮醫書誌』. 大阪: 増修版發行. 昭和48年(1973).
18. 眞柳 誠 解説. 「目でみ漢方史料館」(58) 「喜多村直寛による『醫方類聚』の復刊」. 『漢方の臨床』1992: 39卷 12號.

19. 李鍾奎 發行. 『醫方類聚』(索引) 「跋文」. 서울: 東洋醫科大學. 1965.
20. 金斗鍾. 『醫方類聚』 解題. 『黃帝醫學』 1977: 제2권 제2호.

= ABSTRACT =

A study on the xylographica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Shin Soon-Shik, OMD, PhD* Choi Hwan-Soo, OMD*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1445) is a book compiled the medical achievements of China and Choseon in those times and it's our source of pride to have it in this country. It also deserves careful investigation since this book can provide some clues of features of missing books in China and Korea. The extent of accuracy of xylographica of old books determines the possibility of in depth further study. So author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xylographica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one of the 3 main books in Korea. Previous investigation done by Miki Sakae and Kim Doo Jong are noticeable.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works, we analyzed 『*Annals of the Choseon Dynasty*』 to find records related with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and estimated the situation of its publication. We tried figure the situation of those times of China, Japan and Korea(including North Korea) and tried to estimate the book's original xylographica as much as we could.

By King Sejong's command, the first draft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consisted of 365 books was made by collaboration of civil officials and medical officers during the period from 1443 to 1445.

And then from 1451(first year of Moonjong's reign) to 1464(10th year of Sejo's reign) lots of manpowers were employed and through the process of countless erasure, proofreading, arrangement and rearrangement revised version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which is called by Sejo text was completed. After 3 years of wood engraving work, the first printed form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alternately called Seongjong text) in folding case consisted of 266 chapters, 264 volumes came into the world in 1477.(8th year of Seongjong's reign). This was 32 years after the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s,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initial completion of the edition.

So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exists in three forms as Sejong text, Sejo text and Seongjong text respectively. Since those texts were plunder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none of the original copy remains within Korea.

The texts were constantly moved to kadeungcheongjeong, to Kongdeungpyeongjo, Jesookoan of Edo, to East University of department of classic books, to Cheoncho archives, to the Imperial Museum and finally is kept in the royal palace at present. (Doseoryo text Eulhae printing type)

Reduced-size republication book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in wooden type were imported at the time of "Byeongja Korea-Japan Treaty in 1876" and of those 2 books, one copy was treasured in the Royal Household of the Yi Dynasty and then was lost during the Korean War circa 1950. The other remaining copy has been kept successively by Kjong's imperial grant, Royal doctor Hong Cheol Bo, Hong Taek Joo, Hong Ik Pyo the book agent, and now is kept in Yonsei University Library and this is the only existing copy in Korea at present.

In 1965, Dongyang Medical college published the transcription version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consisting of 11 books and then in 1981 after edition and arrangement by Choonghoa(中華) publishing company, photoprint copy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was published in Keumgang(金剛) publishing company.

In 1991, October Yeokang(驪江) publishing company produced photocopie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which were previously translated into Korean by Nort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nd then issued by medical publishing company.

In China, two institutes, Zhejiang Institut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Huzhou Traditional Chinese Medical Hospital cooperated to publish a revised and marked text consisting of 11 books by adding marking points to Japanese Edohakhoondang text which were used as a reference.

Both the Korean and Chinese texts issued were grounded by the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kept in the royal palace.

Any further study concerning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can acquire its accuracy and objectivity when the Japanese text kept in the royal palace is taken as an original copy.

【Key Words】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Sejong text, Sejo text, Seongjong text, Doseoryo text, Wooden type Reduced-size republication book